

교칙의 합리성과 교육적 의미를 묻는다

- 일시 : 2014년 12월 22일 (월) 19:00
-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목 차

■ 토론회4. 교칙의 합리성과 교육적 의미를 묻는다

• 보도자료	-----	4
• 발제1: 교칙의 합리성과 교육적 의미를 묻는다		
/ 송하영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6
• 발제2: 추운 날 교문 앞에서 외투를 벗으라니요?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28
• 토론1: 최항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43
• 토론2: 윤우현 (국사봉중학교 교사)	-----	48
• 토론3: 정동혁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	63
• 녹취록	-----	67

토론회 4

**교칙의 합리성과
교육적 의미를 묻는다**

일시	12월 22일 (월) 저녁 7시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발제	1. 송하영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2.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토론	1. 최항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2. 윤우현 (국사봉중학교 교사) 3. 정동혁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보도자료



▲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분야는 학생들이 꼽은 것은 용의복장 규정(35%), 교사들이 꼽은 것은 수업 태도(56%).

▲ 용의복장 규정 중 가장 비합리적인 규정에 대해 의복(교복, 신발, 외투 등) 규정을 꼽은 경우가 학생(56%), 교사(42%)로 가장 많아. 겨울철 외투 착용에 대한 불만 높아.

▲ 용의복장을 지도할 때 교칙보다 엄격하게/느슨하게 지도하느냐 분야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 차이 큼.

▲ 교칙 개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학생들의 52%가 부정적 반응, 15%만 긍정적 반응.

▲ 교칙의 합리성에 대해서 학생들의 37%가 부정적 반응, 17%만 긍정적 반응.

▲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44%가 긍정적 반응, 23%가 부정적 반응인데 비해 교사들은 34%가 긍정적 반응, 41%가 부정적 반응. 경기도도 비슷한 수준.

좋은교사운동은 2014년 12월 22일 저녁 7시 “교칙의 합리성과 교육적 의미를 묻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송하영(시흥중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토론은 최항규(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윤우현(국사봉중학교 교사), 정동혁(유한공고 학생인권부장)이 맡았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합리적인 교칙은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정당한 교칙의 권위를 떨어뜨림. 교칙의 정당성에 대해 민주적 소통 구조가 필요하고, 규정의 합리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서울 시내 22개 고등학교의 교칙(용의복장 관련)을 분석한 결과 지나치게 세밀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규정이 다수 발견됨.
- 학생들의 상당수는 겨울철 외투 착용을 실내에서 금지하거나 정문에서 벗어야 하는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전국 중고등학생 735명과 교사 2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용의복장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옴. 교칙의 민주성과 합리성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 반응이 높음.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국사봉 중학교는 교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발성을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끈질긴 소통을 한 결과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크게 향상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둠. 학생들의 자발성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 요인임.
- 경기도의 경우 회복적 생활교육의 기조로 교칙도 그에 맞게 개정을 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구시대적 규정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칙을 제정할 때 학생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015년 1월 2일

좋은교사운동

발제1

송하영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교칙의 합리성과 교육적 의미를 묻는다

I. 실태 (문제 제기)	II. 원인	III. 근거 (교칙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	IV. 대안
좋은교사운동 설문조사	비민주성	학생 교칙 분석(창제, 논술)	대토론회(방송토론 절충)
	불합리성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칙 분석	교칙에 합리적 근거 명시

I. 문제 제기

1. 논의 배경

필자는 혁신학교 3년차인 중학교에 재직 중인 9년차 교사로,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만 근무해왔다. 2000년대 소위 ‘No Cut 운동(두발자유화 운동)’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운동 취지에 동조하며 서명에 참여했던 16만 명 중 하나였기에, 2014년 현재에도 두발자유(혹은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 한편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서 교칙 중에서도 비교적 비본질적인 문제인 용의복장규정 때문에 학생들과 하루 종일 갈등하고 감정을 소모하는 점이 교사 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이다. 본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필자가 현 학교 규칙을 아예 없애자고 하거나 예전처럼 강력하게 만들자는 등 어느 한쪽 편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단지 이 발제문은 중등학교 급에서 교육 주체들 간에 소모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학교 규칙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학교 규칙 제·개정에 있어 교육성과 합리성을 지향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게 하고,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문화로 변화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의 설문조사 및 학생 인권을 다룬 각종 자료와 논문을 살펴보면 학교 규칙에 대해 학생들은 용의복장규정이 성인들이 제시한 근거(학업, 학생다움, 탈선 방지

등)에 합당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여긴다. 학생인권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학생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 학생 개인이 의견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어, 불만은 많으나 의견 제시할 통로가 없다.

또한 학교 규칙에 대해 교사들은 통제를 위한 비합리적 규정이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학생부나 학년부에서 교칙이니 ‘생활지도’하라고 요구하거나 교문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담임교사에게 지도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칙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키자고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담임교사는 다수인 학급 학생 통제의 일환으로 교칙을 관행적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교칙에 불만 있는 학생들과 감정 소모하는 갈등을 겪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교칙을 따르도록 납득시키기 어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 문제는 비단 학생인권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교육)에서 오는 교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나 부장교사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규정 내용이 달라지거나 담임교사에 따라 규정을 가지고 생활지도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결국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담임, 교과 교사들은 학교 규칙 중에서도 용의복장규정으로 인해 학생들과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겪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이후 ‘예전에 비해’ 용의복장규정이 자유로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본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할 당시 과연 이 논의가 아직도 필요한지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¹⁾ 올해부터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작년까지 본교 학생들 중 머리가 긴 여학생들이 머리를 묶고 다녀야 했고, 실내에서 외투 착용을 하고 싶은 학생은 의사의 진단서를 학생자치부에 제출하고 ‘외투 착용 허용증’을 발급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을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공론화할 창구가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다. 본 토론회 발제를 준비하는 1년 간 본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학교 규칙 중 용의복장규정을 자세히 읽고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개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보거나, 도덕 시간에 규칙 개정 참여 방안에 대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또

1) 권재원,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한국학술정보(주), 2008, 230쪽.

“학생들은 복장관련 규칙들, 두발관련 규칙들, 그리고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거의 모든 규칙에 걸쳐 일관되게 교사들은 해당 규칙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학부모는 그 중간에 위치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칙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은 반면, 교사들은 그렇게 여기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규칙에 근거하여 제재를 가하는 측은 그것을 교육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재를 받고 있는 측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그 학교의 규칙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강하거나 느슨한가 여부와는 별개로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았을 때 교육 주체들은 불완전한 교칙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논의 범위

학교 규칙은 용의복장규정 외에도 수업 태도, 외출 규정, 전자기기 소지에 관한 규정, 흡연이나 학교폭력 등 사안 발생 시 선도에 관한 규정 등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본 토론회에서 학생-교사 간 가장 갈등과 미묘한 감정 소모가 심한 ‘용의복장규정’으로 논의 범위를 한정했다. 교칙 분석과 설문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규정, 지도 방법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추후에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3. 이론적 근거

학생인권을 다룬 각종 단행본과 논문을 참조했다. 특히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²⁾ 등에서 제시한 주장에 입각해 군대, 감옥, 병원, 학교에서 몸을 통제한 역사를 분석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용의복장규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근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는 규율권력, 생체권력을 활용했다. 개인 신체에 대한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효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 특히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규율권력 기술을 개발해 사용했다. 근대 공교육 제도가 생겨나던 시기에 함께 만들어졌던 규칙들은 지금도 학교에 남아서 교육 주체를 고통스럽게 한다. 학교에서의 규율권력, 생체권력은 정치적으로는 수적으로 열세한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다룰 때 학생이 반항할 힘을 잃고 순종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학생이 비자발적이거나 학업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성적을 올려 진학하기 어려운 학교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키는 결과를 노린다. 검증할 수 없는 그 효과는 아직도 유명처럼 학교에 남아있다.

한편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중, 고등학생은 “왜”를 묻는 발달 단계를

2) 특히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214-217쪽과 디디에 오타비아니, “미셸 푸코의 휴머니즘”, 열린책들, 2010, 95-96쪽.

지나고 있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학교 규칙에 대해서는 학생과 차근차근 대화하면 대부분 납득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조심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이 시기를 건전하게 보내며 훈련해야 법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인습이후수준- 5단계: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Social contract orientation), 6단계: 보편 윤리적 원리의 단계(Universal ethical principles)), 성숙한 민주시민역량을 가진 성인이 될 수 있다.

II. 원인

1. 학교 규칙의 비민주성

1) 정직 문제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양산하고 있다. 교문 지도에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매우 일찍 등교하거나 등교 시간 이후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지키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미리 공지하지 않고 불시에 용의복장 검사를 하거나 명예경찰 제도를 만들어 일과 시간 중 수시로 선배인 명예경찰이 후배의 교실에 들어와 용의복장 위반자를 적발한다. 용의복장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교문 지도를 통과하면 실내에서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적발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일상적 검열을 통해 적발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불안한 학교생활을 한다.

2) 개정 절차의 문제³⁾

개정 절차에서 학생이 참여하지 못해 교칙 내용 자체를 모르거나 지키려는 동기 부

3)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0, 91-92쪽.

“복장 단속과 두발 검사, 소지품 검사 등 엄격한 학교규율을 강제하는 생활지도에서 각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교사들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사들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교사들이 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이들을 처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칙과 생활지도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속과 통제는 명문화된 규정을 벗어나 교사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아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교칙이나 생활지도규정을 수시로 바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칙이나 생활지도규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아이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규정이 바뀐 다음 날부터 곧바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아이들을 처벌하는 학교도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은 직접 ‘희생양’이 되거나 누군가가 대표로 ‘희생양’이 되는 상황을 접하고 나서야,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알게 된다. 미리 ‘통고도 없이’, ‘고칠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처벌부터 하는 것이다.”

여가 되지 않는다. 첫째, 내용을 몰라서 못 지킨다. 대의원회와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 통계 등을 바탕으로 수렴한 의견을 교사 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학년도 학생은 학년 초에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학교 규칙을 위반한 줄도 모르고 위반해서 훈계를 듣는다. 특히 신입생은 하늘에서 떨어진 법 같은 학교 규칙을 원래 이 학교는 이렇게 지도하나보다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학년 중반에 개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한은 최소한 1년은 억울함과 불만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둘째, 내용을 알지만 스스로 정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안 지킨다. 사회에 존재하는 법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하고 합의 과정을 거친 법이나 규칙이 아닐 경우나 그 내용을 세밀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법이나 규칙을 지킬 이유를 납득하지 못해 위반하거나 지켜야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낸다. 학생이 학교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어렵겠지만, 제·개정 과정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인데 지금으로서는 어수선한 학년 말에 학생 부에서 학교 규칙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회 대의원(대부분 모범생인 각 학급 반장, 부반장)들을 급히 불러 모아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대변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잘 전달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의원들은 본인은 잘 지키고 있으므로 학급 친구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학교 규칙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견 수렴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방법이 능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반 학생들도 의견을 제시해봐야 교사들이 수용해주지 않으리라는 불신감과 함께, 발언을 했다가 교사에게 밉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선불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지도 과정에서의 차별

사람마다 가치관과 기대 수준, 눈높이가 다르다보니 용의복장에 대한 지도 방식이나 내용이 교사마다 다르다. 또한 지난 2013년에 좋은교사운동에서 ‘상벌점제’ 관련 토론회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많이 나왔던 답변이었지만 용의복장을 점검하는 교사나 선도부 학생들이 친한 학생이나 평소 강한 성향을 보였던 학생에게는 느슨한 기준으로 점검하는 등,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지도 방식과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상황은 지도 받는 학생들이 원칙과 기준 없는 불공평한 생활 지도라는 인식과 불만을 갖게 한다. 이러한 반발심은 다시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든다.

2. 학교 규칙의 불합리성

1) 합리적 근거 부재

앞으로 살펴볼 ‘학생들의 교칙 분석 활동’ 결과와 ‘서울 소재 22개 고등학교 교칙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 규칙에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그 내용에 불만을 느끼거나 지도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다. 예전에는 많은 학교에서 채택했지만 지금은 소수 학교에만 남아 있는 규정들은 학교가 다수의 학생을 용이하게 통제하기 위해 용의복장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 지도했던 흔적을 보여준다. ‘19세기 학교, 20세기 교사, 21세기 학생’이 공존하는 학교라는 표현이 있듯, 학교는 근대 국민 양성을 위해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개인 신체에 대해 생체권력, 규율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순종적인 국민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2) 지나치게 세밀

또한 현재는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용의복장규정은 여전히 학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제반 사항을 정해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없어졌던 ‘수치 명시’ 관행이 다시 부활했다. 특히 지역에서 유서 깊고 질서 잡혀 있으며 입시 결과가 좋은 ‘명문 학교’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 학교일수록 학생의 신체와 행동을 세밀하게 관리한다.⁴⁾ 여학생의 머리카락은 어깨선을 넘으면 꼭 묶어야 하고 교복 상의 단추는 항상 채워야 하며 넥타이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체육복은 체육 시간에만 입을 수 있고 치마는 무릎선 중간까지 와야 하고 주름은 몇 cm까지 박아야 한다. 스타킹은 살색만, 양말은 흰색만 착용 가능하며 학교에서 코트와 구두까지 교복과 함께 맞추게 하는 학교도 아직 존재한다.

3) 교육 주체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

일반적으로 고경력자인 관리자 및 부장 교사일수록 지나치게 세밀하게 학생의 신체

4) 배경내, 77쪽.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 구성원 상호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각종 생활지도규정은 구성원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된 것도 아니며,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도 아니다. 학교의 규율권력은 생활지도의 명목으로 일상적인 검열을 수행함으로써 입시명문이라는 평판을 얻고 질서를 유지하는 대신 아이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겉으로만 질서가 유지되는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 낸다. 생활지도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학생이나 일반 교사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학생부 교사들에 의해 결정되고 교장의 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합리적인 규정이 많다. 일부 교사들과 교장이 만들어 낸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어 사는 건 힘들다.”

를 통제하는 용의복장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⁵⁾ 학부모는 ‘공부 시키는 이미지’가 있는 그 학교에 성적 좋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자신의 학생을 진학시키려고 노력하고, 순종적인 학생들은 불만이 있지만 발언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물질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 (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일수록 용의복장규정이 강력하기를 기대한다. 결국 학교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용의복장규정을 과감하게 폐기하지 못하고, ‘단정’, ‘학생다움’이라는 목적 하에 성인의 높은 기준에 맞춘 규정을 유지한다.

Ⅲ. 교칙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1. 학생들의 교칙 분석 활동⁶⁾

필자는 교육감 선거 몇 주 전에 학생들과 ‘학교, 꿈이 있는 상상’이라는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을 통해 드러난 학생들이 교육감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의외로 ‘학교 규칙을 바꿔주세요.’였다. 필자는 이 문제가 학교 차원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2학기에는 본교 학생들과 두 가지 활동을 했다.

첫째,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본교 학생인권규정을 분석했다. 모둠별로 ‘우리학교에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할 교칙’을 이야기한 후 결과를 모아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그리고 칠판 나누기를 통해 학급에서 공유했다. 학생부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발언이 자유롭게 나왔으며 듣는 학생들이 공감했다. 본교 학생들은 ‘두발 자유’와 ‘실내 외투 착용 허용’을 요구했다.

둘째, 도덕 수행평가 중 논술 평가 시 중학교 2학년들에게 ‘본교 학교 규칙 요약본에 나타난 문제점 2가지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5) 권재원, 232쪽.

“먼저 경력별로 살펴보면 경력이 20~30년 사이의 교사들이 학교생활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낮았으며 경력 10~20년의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소속 교원 단체별로 보면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이 학교생활규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인권침해의식이 가장 높다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경우도 겨우 학부모들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즉 교사들 중 가장 진보적인 교사들이 겨우 일반인 수준으로 학교규칙의 인권침해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6) 중학교 1학년은 경기도교육청, “창의지성 더불어 나누는 철학” 중 ‘3-2. 학생은 인권을 누리면 안 되나요’ 단원에서, 중학교 2학년은 경기도교육청 “창의지성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중 ‘IV.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요?’단원에서 교칙 분석을 함께 했다.

방안을 제시하시오.’라는 논제를 제시했다.

〈자료 1: 학교 규칙 분석 위한 교칙 요약본 중 학생이 논술 답안에서 언급한 부분 발췌〉⁷⁾

1. 용의복장			
	남학생	여학생	비고
복장	: 바지통은 하단 <u>최소 6통</u> 으로 하고, 바지를 올렸을 때 무릎(종아리 위)아래까지 올라가야 한다.	: 치마는 무릎 위까지 허용하고, <u>치마하단 15cm위까지 트임</u> 이 되어 있어야 한다.	* <u>규정 위반 시 트임 조치</u>
두발	: 변형을 주지 않아야 하며, <u>눈과 귀가 확연히 보여야 한다.</u>		

3. 생활

다.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 하는 경우 독서지도 교내봉사 3시간에 처한다.

바. 동계 실내 외투 착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교실에서 난방기 가동 온도는 14℃이하이며 16℃를 넘으면 난방기 가동을 중단한다.

4. 휴대폰

나. 미제출 또는 수업 중 적발 시 압수보관하며 압수일은 교사 재량으로 처리한다.
(단, 제출한 핸드폰 파손 및 분실의 책임은 제출한 학생에게 있다.)

5. 외형

가. 반지와 귀걸이·팔찌 등의 액세서리는 허용하지 않으며, 적발 시 압수한다.

나. 가항을 위반하여 압수된 액세서리는 학부형에게 통보하여 1주일 내에 찾아가도록 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이 진다.

용의복장규정만을 거론한 논술 답안을 분석해보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규정을 개정해야함을 주장했다. 30명 중 절반 이상이 ‘두발’과 ‘외투’ 문제를 거론했고, 4~5명 가량이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 두발 길이 규정: 두발 길이는 학업과 관계없음, 눈을 찌르고 귀를 덮을 정도로 길면 본인 스스로 자르리라고 주장, 겨울에 머리를 짧게 자르면 귀와 얼굴이 추움
- 외투(사복) 착용 규정: 감기에 걸려야 외투를 착용할 수 있는가?
- 체육복 착용 규정: 등, 하교 시 체육복(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만든 생활복) 착용, 왜 안 되는가?
- 교복 변형: 바지 6통은 개인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 치마 주름 15cm는 치마가 펴려거리게 해 오히려 활동하기 불편, 적발 이후 시정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거나 트임 조치했을 때의 문제점
- 액세서리 규정: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목걸이나 반지는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은지? 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나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액세서리는 허용해주었으면 함, 초등학교 때 이미 귀를 뚫은 학생은 막히지 않도록 작은 귀걸이 착용이라도 허용

7) 부록으로 2-1 김○○ 학생의 답안을 제시했으니 참고 바란다.

해주었으면 함

용의복장규정은 아니지만 ‘휴대폰 수거(특히 제출 이후 분실이나 파손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불만을 한 학급 약 30명의 학생 중 15-20명 가량이 토로했다. 휴대폰은 학생 개인의 필요나 안전 등의 이유로 수업 시간 혹은 쉬는 시간에 급히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특히 고가의 개인 소유 재산인데 수거 후 문제 발생 시 학생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납득하지 못했다. 그밖에도 위반한 행위와 처벌 내용의 맥락이 맞지 않아(예를 들어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하다가 적발되면 학생부에서 ‘독서와 상담’ 지도를 받아야 함)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한 학급 당 4-5명 씩 제시했다.

실제로 ‘2014학년도 인권존중 생활지도 계획’은 65페이지에 달하며 학생부 교사가 아니라면 차근차근 읽어본 학생이나 교사가 드물 정도이다. 규정에서는 명찰을 탈,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도 시에는 교복 상의에 부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외투 규정에 문제가 있어 작년 학년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후 실내 착용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나 담임교사들이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학급도 있었다. 그리고 규칙에 명시한 규정과 상관없이 ‘어른들 눈에 단정해보이도록’ 관행에 따라 두발과 외투 착용 등을 지도하는 교사도 있었다.

무엇보다 본교는 혁신학교인데도 인근 학교보다 강력한 용의복장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 규칙 제·개정에 참여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믿는 지점이 엿보여 가장 안타까웠다. 학생의 말과 글을 통해 그들이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어 하며, 학교 규칙 제·개정에 있어 충분히 합리적인 사고를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께 합의한 약속이라면 지킬 의향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지금의 학교 규칙 중 용의복장규정은 그 내용과 지도 방식 및 제·개정 형식 모두 학생들이 자율적인 민주시민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용의복장으로 학생을 통제하려는 관행이 남아 있어 교육주체(학생과 교사 모두)가 인정하지도 지키지도 않는 상황이다. 필자는 원칙과 정직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에 교칙 자체에 납득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학생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학급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용의복장을 지도하지 않는 타반 담임교사가 있다면 우리 반 학생들의 불만은 두 배, 세 배로 커진다.

2. 서울 22개 고등학교⁸⁾ 교칙 분석

교칙은 진리가 아니다. 용의복장규정에 들어있었더라도 교육상 불필요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면 교육주체 간 공론화와 합의에 의해 폐기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분석 작업을 통해 첫째, 22개 학교 중 많은 학교가 남겨둔 항목과 폐기한 항목의 수치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용의복장규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둘째, 예전에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허용하게 된 항목(특히 혁신학교)도 주목해보고자 했다. 셋째, 무엇보다 용의복장규정이 학교마다 얼마나 세밀하게 학생의 신체를 통제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1) 각 학교 용의복장규정 제정 목적(중복 허용)

연번	항목	학교 수	비고
1	학생 신분, 단정, 깨끗	10	학교 차원에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효율
2	면학	3	
3	생활습관, 예절	4	
4	건전한 학풍 조성	4	
5	인권 존중, 개성 발현	3	민주성
6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5	
7	없음	11	

학교 규칙 자체의 제정 목적 외에 용의복장규정 부분에서만 따로 제정 목적을 명시한 학교 수는 위와 같다. 한 문장 안에 여러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했다. 성격 상 1, 2, 3, 4항과 5, 6항으로 묶어 논의해보면, 현재 관행 상 운영하는 용의복장규정은 전자에는 부합하나 후자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 각 항목 세부 내용 분석⁹⁾

8) 2013학년도에 입수한 ‘강서고(사립일반), 경일고(공립자공), 구현고(공립자공), 금육여고(공립혁신), 면목고(공립자공), 명덕여고(사립일반), 삼각산고(공립혁신), 상계고(공립일반), 서울전자고(공립특성화), 선사고(공립혁신), 성동공고(공립특성화), 개포고(공립일반), 무학여고(공립일반), 상문고(사립일반), 선정고(사립일반), 신현고(공립혁신), 잠실여고(사립일반), 장훈고(사립자사), 재현고(사립일반), 중경고(공립자공), 중대부고(사립일반), 중앙고(사립자사)’의 2012학년도 혹은 2013학년도 학교 규칙 중 용의복장규정만 발췌하여 분석함. 참고로 선사고는 학교 규칙 자체에는 용의복장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상점·별점 기준표에만 4항목을 명시함. 2014학년도 2학기 경기도 상벌점제 폐지 정책 이후 서울 소재 고등학교 중 간접적 영향을 받고 용의복장규정을 개정한 학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음.

9) 표 안 ‘비고’에 ★가 붙어 있는 항목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규정 제시 방법임.

- 두발 관련 규정(길이와 모양, 각종 시술, 머리핀 허용 여부 등)

연번	항목	학교 수	비고
1	수치 명기	5	학생인권조례 시행 당시 용의복장규정에서 '수치'를 없애도록 권고했으나 조례가 느슨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수치'가 부활한 학교들이 있다.
2	길이 제한 (눈썹이나 귀 덮지 않기, 여학생 어깨 아래선 넘지 않기 등)	10	수치까지 규정하지는 않지만 길이 제한은 절반 가까운 학교에 남아있다.
3	특정한 형태 금지 (삭발, 반삭, 투블럭, 스크래치, 스포츠머리 금지 등)	6	
4	염색, 탈색 금지	19	교직 분석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염색이나 파마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합리성과 필요성에 동의하는 편이다.
5	파마 금지	18	
6	고데기, 드라이 금지	1	
7	왁스, 스프레이, 무스, 젤 금지	13	
8	가발, 모자 금지	10	
9	여학생 머리 묶기	6	예를 들어 M여고(사립일반)는 '긴 머리는 묶어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10	머리핀 제한 규정	5	
11	단정, 학생다운 머리	10	★

대다수 학교에 남아 있는 규정은 염색과 파마 금지 규정이다. 학생과 성인(교사, 학부모 등) 모두 수긍하고 있는 이 규정은 보건(성장기 학생의 머릿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염색이나 파마가 학생답게 단정한 두발이 아니라는 성인들의 인식도 이 규정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수치 명기 없는 두발 길이 제한, 두발에 제품 도포 금지, 실내 모자 착용 금지는 22개 학교 중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외모 관심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자는 목적 및 예의와 단정함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학생은 수긍하지 않고 있다. 길이 제한 수치 명기, 학생과 성인의 특정 형태 금지, 긴 머리 묶기, 머리핀 제한 규정은 일부 학교에만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소수 학교만 유지하고 있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교육적 근거가 미약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폐기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두발 관련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다. 두발 규정을 없애거나 세밀하게 규정을 정하지 말고 '단정하고 학생다운 머리'로만 제시한 학교도 분석한 학교 중 절반 정도 존재

한다.

- 용모 관련 규정(화장, 서클렌즈, 액세서리- 귀걸이, 피어싱, 목걸이 착용, 매니큐어, 선크림 사용 가능 여부)

연번	항목	학교 수	비고
1	(색조)화장 금지	11	
2	서클렌즈, 컬러렌즈 금지	3	
3	액세서리- 귀걸이 금지	14	액세서리 규정에 주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함’ 외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액세서리 분야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액세서리- 피어싱 금지	16	
5	액세서리- 목걸이 금지	15	
6	액세서리- 반지 금지	15	
7	액세서리- 팔찌 금지	13	
8	색안경, 도수 없는 안경 금지	5	
9	매니큐어 금지	3	
10	선크림, BB크림 가능	1	★
11	수염 기르기 금지	3	
12	문신 금지	1	

용모 분야에서 가장 많이 규제하는 분야는 액세서리 착용 규정이다. 이 규정의 근거로 보건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보건과 관련해서 큰 귀걸이나 피어싱은 염증 등 귀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지 규정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액세서리 금지 규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급진적인 일부 학생은 초등학교 때 뚫었던 구멍이 막힐 수 있으니 투명 귀걸이나 작은 콩 귀걸이 정도는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인들은 액세서리 규정을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곤 한다. 액세서리 착용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필자는 액세서리 분야 별로 다른 수치가 나오리라 기대했으나 별 차이가 없다. 학생과 성인의 이러한 시각 차이가 생활지도 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지점이다. 심한 색조 화장 금지는 절반 정도의 학교가 명시하고 있다.

의외로 서클, 컬러렌즈 금지, 매니큐어 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적었다. 보건이라는 근거를 생각한다면 학생의 눈 건강이나 손톱 건강(투명 손톱보호제 제외)을 위해 규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화장 여부를 따질 때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 ‘선크림’ 문제이다. 메이크업베이스나 파운데이션 수준의 ‘화장품’이 아니라 자외

선 차단을 위한 ‘선크림’을 허용한다고 명시한 학교가 한 군데 있었다.

- 의복 관련 규정(교복 변형 수치와 모양, 교표나 이름표 부착 방식, 하복과 춘추복 혼용, 생활복이나 사복 혼용에 대한 규정, 후드티나 가디건 착용 가능 여부, 셔츠 안 티셔츠 색깔 규정, 외투 색깔 및 착용 가능 시기와 방법 규정, 계절별 착용 시기 명시 여부, 여학생 바지 착용, 레깅스 허용)

연번	항목	학교 수	비고
1	변형 금지	12	
2	수치 명기	8	학생인권조례 시행 당시 용의복장규정에서 ‘수치’를 없애도록 권고했으나 조례가 느슨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수치’가 부활한 학교들이 있다.
3	교복 자세한 모양, 색깔 규정	11	
4	교표, 명찰 ‘부착’ (탈부착이나 목에 패용 아님)	15	
5	넥타이 착용	4	
6	하복, 춘추복, 동복 착용 시기 명기	6	
7	생활복, 간편복 항상 허용	1	★
8	체육복 체육 시간에만 입기 (등하교시 착용 금지, 체육시간 외 착용 금지)	3	
9	사복- 후드티나 가디건 금지	7	조끼 미착용 허용(J고)
10	사복- 셔츠 안 티셔츠나 폴라티 색깔 규정	8	
11	속옷 색깔, 착용 방법 규정	2	
12	사복- 외투 색깔과 모양 규정(원색, 무늬나 문자 쓰인 외투 금지)	6	
13	사복- 외투 착용 시기, 방법 규정 (실내 외투 착용 금지, 동복 자켓 착용 후 외투 착용 규정 등)	11	
14	여학생 바지 착용 가능	7	★
15	레깅스 허용	1	★

교복 변형을 금지하는 학교가 많다. 수치 명기가 부활한 학교가 22개 학교 중 8군데

이다. 개인의 체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이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이다. 교복 제작과 구입에 참고하기도 하지만 변형 및 올바른 착용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교복 그림과 치수까지 세밀하게 제시한 학교도 11군데이다. 그러므로 1, 2, 3항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6군데가 교복 계절 별 착용 시기를 명기하고 있고 11군데가 실내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학교가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 규정이 개인의 체질(더위나 추위를 유독 많이 타는 학생)이나 건강을 배려하지 못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폐기했거나 처음부터 명시하지 않은 학교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복 안에 입는 사복 규정도 세밀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학교가 7, 8군데 있다. 편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만든 생활복이나 간편복을 항상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가 1군데 있고, 체육복을 체육 시간에만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가 3군데 있다.

명찰을 교복에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탈부착 가능 여부’와 ‘교내에서는 꼭 부착’, 혹은 ‘명찰을 앞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침해와 등하교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명찰을 착용하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명찰 교복 부착 상태에서 등하교 시 모르는 타 학교 선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며 불안을 호소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학생 바지 착용 허용을 명시하거나, 겨울철 치마를 입는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레깅스 착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바람직하다.

- 가방, 양말, 스타킹, 신발 등(색깔, 종류, 신발 굽 높이 수치)

연번	항목	학교 수	비고
1	가방 모양 규정	13	
2	양말 색깔 규정	3	
3	스타킹 색깔 규정(커피색 금지, 무늬 없는 스타킹 착용 등)	6	
4	신발 색깔과 종류 규정	16	
5	신발 굽 높이 수치 명기	4	
6	실내화 모양 규정 (실내화만 혹은 슬리퍼만)	2	
7	실내외화 구분 착용 규정	10	
8	(실내) 목도리, 스카프 착용 금지	1	

성장기 학생의 척추와 어깨 건강을 위해 무게를 양쪽에 분산시킬 수 있는 책가방을 착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안전한 등하교 및 체육 활동을 위해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은 필요해 보인다. 두 규정 다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학교 차원에서 교복처럼 구두도 맞추는 사례가 있었다. 가방 및 신발 규정은 기준을 세밀하고 엄격하게 제시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건강을 위한 필요성을 납득해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양말과 스타킹 색깔 규정, 실내화 모양을 한 가지만 제시하는 규정은 많은 학교에서 폐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대안

1. 제·개정에 학생 참여

1) 대토론회, 방송 실시간 의견 제시 및 투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주체가 한 공간에 모여 실시간으로 대토론회를 여는 방식이다. 다함께 모여 협약하면 스스로 정하고 납득한 약속이라는 책임감이 생겨 학생은 정직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도하는 교사는 필요한 내용을 차별 없이 지도하겠다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 학년말에 학생, 학부모 종이 설문조사를 받아 통계를 내거나 대의원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간접적으로 개정하거나, 교사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개정 내용을 결정하는 현재 개정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은 개정 내용과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개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인식이 부족해 지켜야 할 약속으로 여기지 못하거나 자신이 납득 되지 않는 규정은 쉽게 위반한다.

개정 시기는 실제로 지켜야 할 학생이 발언할 수 있도록, 또한 개정된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행 학년말보다는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와 같이 학년 중반이 적절하다. 학년말 의견 수렴 시 3학년이었던 학생은 규정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졸업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 없었던 신입생이 입학한 후 3월 개학 첫날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대토론회가 여의치 않다면 절충안을 제안한다. 같은 장소에 전교생이 모여 발언하는 대토론회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고 비효율적이리라 걱정하며 대토론회를 꺼리는 학교가 많다. 필자가 학생들과 교직 분석을 해본 결과 방송 토론과 휴대폰을 이용한 실시간

투표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중 자치 시간, 창체 시간이나 관련 교과 시간을 이용하여 학급별로 충분히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모아 1학기말 쯤 학생회의를 실시함으로써 각 학급에 방송 중계하고, 학생들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조차 어렵다면 적어도 대의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¹⁰⁾ 그 대의원회는 실질적으로 전교생의 대표성을 띠어야 한다. 현행 교칙 개정 과정에서는 교사나 운영위 소속 성인들에 비해 학생의 발언권이 너무 적다. 혹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칙 개정 시 학생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2) 연중 교칙 분석 활동, 학교 간 교칙 공유

위와 같은 대토론회나 절충한 방송 토론회 및 실시간 투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중 교칙 분석 활동을 전제해야 한다.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토론회를 열 경우 일부 목소리 큰 학생이 방종에 가까운 교칙 개정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자치 시간, 창체 시간, 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 등 교육 주체 모두가 교칙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며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학교 간 학교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서울 소재 22개 학교 규칙 중 용의복장규정 분석’ 결과를 통해 거의 모든 학교가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규정이 있는 반면, 일부 학교에서만 관행 상 유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도 다른 학교 규칙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없지는 않지만, 학교마다 규칙의 양이 방대하고 많은 학교 교칙을 두고 분석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다. 학교 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분석, 요약, 정리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교칙 개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육주체들은 다른 학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칙을 개정해가고 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10) 권재원, 262-263쪽.

“학생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칙이 필요한 것이며, 그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두발·복장과 같은 영역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작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참여의 영역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반응을 보인 것은 심각하게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인권침해는 학생들 스스로의 낮은 인권의식에서도 기인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머리털과 옷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자신의 권리들 중 머리카락과 복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머리카락과 옷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시해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사든 학생이든 인권교육의 문제는 시급하다. 이들에게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인권에 대한 깊은 수준의 성찰과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인권침해에 대한 불의감을 예리하게 할 때, 해마다 잇을 만하면 재현되는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 규칙에 합리적 근거 명시

1) 학교 규칙 제·개정 의 좋은 사례

학생인권규정에서 용의복장규정을 없앴거나(선사고) 최소화한 학교가 있다(금옥여고, 삼각산고 등). 용의복장규정이 세밀하고 엄할수록 지도의 필요성과 소모되는 노력은 늘어나고, 학생과 교사의 갈등은 심화된다. 합리적 근거 없고 비본질적인 규정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학교생활의 본질적인 지점(예를 들어 학생 자치, 수업태도, 교권침해, 흡연, 학교폭력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은 오히려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자료 2 : 삼각산고 용의복장규정〉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여 자율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학생은 사회통념상 기본적인 학생의 모습(교복착용, 가방휴대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용의복장은 삼가야 한다.

① 교복착용

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나. 교복은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② 두발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여 본교의 일원으로서 품위와 긍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③ 신발 착용

가. 단정한 운동화 및 학생화를 착용하되 운동화의 색상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 단,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할 수 없다.

④ 장신구 착용

타인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⑤ 화장

가. 피부색이나 피부 보호 등을 고려하여 비비크림, 썬 크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지나치게 화려한 메이크업(손톱 매니큐어, 눈 화장, 입술 화장 등)은 하지 않는다.

2) 합리적 근거 명시

삼각산고 용의복장규정을 활용해서 ‘항목-내용-근거-위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담은 표를 예시로 작성해보았다. 여기에 명시한 근거는 광노현¹¹⁾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교칙의 근거로 ‘공중보건’과 ‘공중도덕’을 제시했던 아이디어를 참고했다. 여기

11) 광노현, “정검다리 교육감 : 광노현의 교육혁신 701일”, 메디치미디어, 2014.

에서 ‘공중보건’을 용의복장규정의 근거로 삼는다는 말은 용의복장규정을 통해 성장기인 청소년 자신의 건강과 교육가족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의미이다. 또한 ‘공중도덕’을 근거로 삼는다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규정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예를 들어 과도한 교복 변형), 위화감이나 혐오감(소위 말하는 ‘썸척’)을 주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여기에 주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다운 단정한 태도’를 포함시켜야 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항목	내용	근거	위반 시 책임
교복	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나. 교복은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공중도덕- 타인에게 위화감, 혐오감 주지 않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정 조치
두발	단정한 상태	공중도덕- 타인에게 위화감, 혐오감 주지 않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정 조치
신발	가. 단정한 운동화 및 학생화를 착용하되 운동화의 색상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 단,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할 수 없다.	공중보건- 교육가족의 기관지 건강 공중도덕- 청소의 어려움	현관과 복도 청소
장신구	타인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공중보건- 염증 방지 공중도덕- 타인에게 위화감, 혐오감 주지 않기	시정 조치 및 장신구 개인 보관
화장	가. 피부색이나 피부 보호 등을 고려하여 비비크림, 선크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지나치게 화려한 메이크업(손톱 매니큐어, 눈 화장, 입술 화장 등)은 하지 않는다.	공중보건- 피부건강 공중도덕- 타인에게 위화감, 혐오감 주지 않기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 시 시정 조치

V. 결론

좋은교사운동 설문조사 주관식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용의복장규정이 학생 고통을 유발하는 정도는 교사나 다른 성인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심각하다. 학생들은 교칙 개

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의견을 발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교칙 내용의 불합리성 때문에 규정을 지켜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학생과 함께 한 교칙 분석 활동 결과와 서울 소재 22개 고등학교 교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교칙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토론회나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이 직접 납득하고 약속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칙이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고민하여 규정에 명시하고 근거 없이 관행 상, 통제를 위해 남아 있던 규정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대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위해 강화해야 할 다른 분야의 규정들에 대해서도 공론화하고 합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 토론회 자료

좋은교사운동(2010),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학생인권논의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사)좋은교사운동.

_____ (2013),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상벌점제, 대안을 찾는다”, (사)좋은교사운동.

* 논문

박주영(2012), “고등학생의 용의복장 규제에 대한 적합성 인식 및 영향요인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단행본

공현 등 공저(2009),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메이데이.

곽노현(2014), “징검다리 교육감 : 곽노현의 교육혁신 701일”, 메디치미디어.

권재원(2008),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한국학술정보(주).

디디에 오타비아니(2010), “미셸 푸코의 휴머니즘”, 열린책들.

미셸 푸코(2003), “감시와 처벌”, 나남.

배경내(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약, 월간 진로 잡지 "MODU" (2014년 9월호 Vol 18).

이승원(2005), “학교의 탄생”, 휴머니스트.

인권교육센터 ‘들’기획(공현, 박민진, 배경내, 오혜원, 정주연, 조영선 함께 씀)(2011), “인권, 교문을 넘다: 학생인권쟁점탐구”, 한겨레에듀.

진중권(2007), “호모 코레아니쿠스”, 웅진지식하우스.

크리스티네 술츠-라이스·공현(2010), “청소년 인권 수첩”, 양철북.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4),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부록 1 :

교칙 요약본을 토대로 학교 규칙을 분석한 중2 학생의 도덕 수행평가 논술 답안〉

직접 참여해 볼까요?

* 논제: 본교 학교 규칙 요약본에 나타난 문제점 2가지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 답안: 2-1 김○○ 학생 작성

모든 학교에는 규정이 있다. 학교의 교칙은 그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정하는 편이다.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삶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나라에 속한 어린 시민이지만 학교에서는 결코 어리지 않다. 그런데 학교는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으로 취급한다. 우리는 학교에, 또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학교에서 만큼은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학교생활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선 본교 규정 중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규정은 외투 착용에 대한 교칙이다. 외투 착용에 대한 교칙이 무차별적으로 엄격하다.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부에서 진단서를 보여준 후 받은 외투 착용 허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지만 일주일 단위로 외투 착용이 가능하다(2013학년도 기준). 하지만 질병에 걸리기 전에 질병 예방을 위해 외투를 착용할 수도 있다. 꼭 병에 걸린 후에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외투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학생이기 전에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불만인 교칙은 휴대폰 수거에 관한 교칙이다. 휴대폰 제출은 필수이나 분실, 파손 시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 휴대전화는 값비싼 물건이다. 시가 5-6만원부터 100만원을 넘는 가격의 휴대전화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를 당한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통신수단으로 최적화 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휴대전화를 놓고 다니기엔 찝찝하거나 불안하다.

더군다나 학교는 교칙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나 통보가 없었고, 왜 이런 교칙이 생겼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이는 교칙에 불만이 많은 학생들의 화를 돋을 뿐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화장과 액세서리 착용을 왜 하면 안 되는 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도 모른 채 혼나거나 액세서리를 빼앗기는 학생들은 어이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적극적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이런 점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알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완벽해져야 한다. 남의 잘못이나 흠을 말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흠이 없는지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규정을 잘 지키되, “이런 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야 비로소 해결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우리에게 적절히 맞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를 유념하고 적극적인 대응 태도가 필요하다.

〈부록 2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주요내용 중 본 발제문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 발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공포일자 2012.01.26.)¹²⁾

1. 주요내용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13조)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2. 관련 세부 내용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12) 본 자료는 요약본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관련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정 및 시행 2012.1.2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제정 및 시행 2012.6.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제정 및 시행 2013.3.22.)’.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작업 중,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관련 사이트 도메인 만료 등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발제2**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학교 교칙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추운 날 교문 앞에서 외투를 벗으라니요?

(사)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교칙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736명, 교사 298명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11일부터 21일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분포]

● 학생

- 중학생 408 명, 고등학생 327 명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경상	호남	제주	계
87	429	27	14	55	85	32	4	735

● 교사

- 중 147명, 고 151명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경상	호남	제주	계
56	143	16	13	9	40	20	1	298

[설문 분석]

1. 학교생활에서 선생님/학생과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분야

-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용의복장(35%)으로 지목한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과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수업태도(56%)로 지목하고, 용의복장은 (20%)로 응답하였다.

〈그림1-1. 학교생활에서 주된 갈등유발 분야(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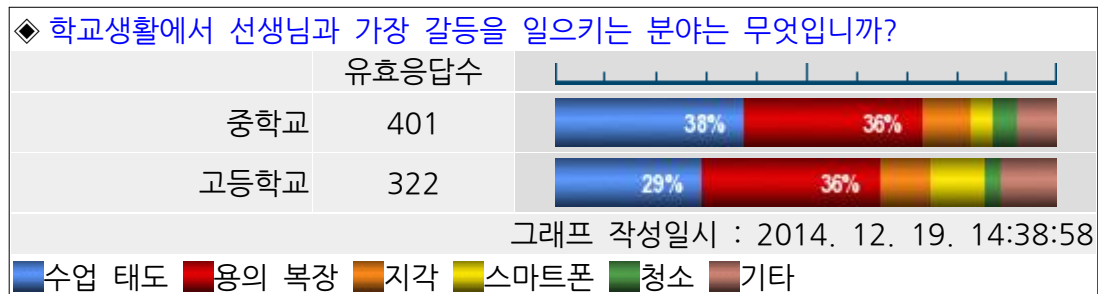
◆ 학교생활에서 선생님과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수업 태도	245	33%	
용의 복장	256	35%	
지각	71	10%	
스마트폰	52	7%	
청소	30	4%	
기타	70	10%	
No Answer	12	2%	

〈그림1-2. 학교생활에서 주된 갈등유발 분야(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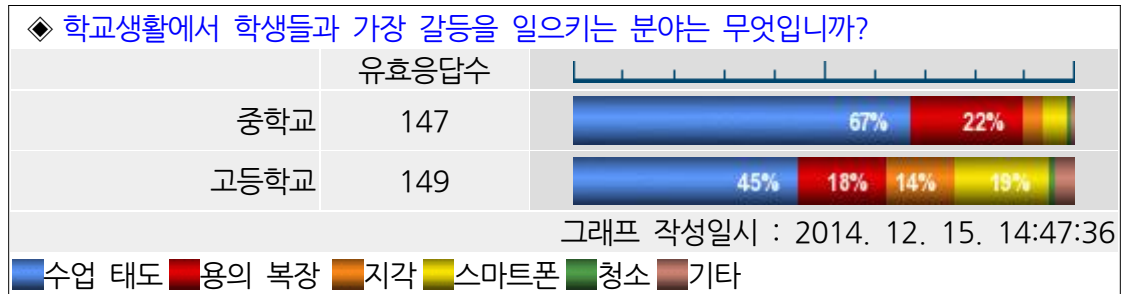
◆ 학교생활에서 학생들과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수업 태도	165	56%	
용의 복장	60	20%	
지각	27	9%	
스마트폰	35	12%	
청소	3	1%	
기타	0	0%	
No Answer	7	2%	

- 학교급별로 다소의 응답 차이가 있었다.

〈그림1-3. 학교급별 학교생활에서 주된 갈등유발 분야(학생)〉



〈그림1-4. 학교급별 학교생활에서 주된 갈등유발 분야(교사)〉



2. 학교 용의 복장 규정 중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의복규정(교복, 신발, 외투 등)의 규정이 불합리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비율에 있어서는 학생 56%, 교사 42%로 체감도의 차이가 있다.

〈그림2-1. 용의 복장 규정 중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학생)〉



〈그림2-2. 용의 복장 규정 중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교사)〉



3. 용의복장을 지도할 때 교칙대로 지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



-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교칙보다 더 엄격하게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30%), 교사들은 5%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반면 교칙보다 느슨하게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교사들이 67%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13%로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인다. 교칙대로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학생들은 52%이고, 교사들은 20%로 인식 차이를 보인다. 요컨대 교사들은 10명 중 7명이 교칙보

다 느슨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생들은 10명 중 1명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3-1. 용의복장 지도 시 교칙대로 지도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학생)〉

◆ 선생님이 용의 복장을 지도할 때 교칙대로 지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칙보다 엄격하게 지도하신다	221	30%	
교칙대로 지도하신다	383	52%	
교칙보다 느슨하게 지도하신다	97	13%	
교칙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33	4%	
No Answer	2	0%	

〈그림3-2. 용의복장 지도 시 교칙대로 지도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교사)〉

◆ 동료 교사들이 용의 복장을 지도할 때 교칙대로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칙보다 엄격하게 지도한다	15	5%	
교칙대로 지도한다	60	20%	
교칙보다 느슨하게 지도한다	200	67%	
교칙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23	8%	
No Answer	0	0%	

4. 교칙 개정 과정의 민주성

- 교칙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였느냐에 대한 인식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 차이가 보인다. 학생들은 아니다가 52%(아니다 29%, 매우 아니다 23%)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아니다가 31%(아니다 26%, 매우 아니다 5%)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그렇다는 비율은 학생들은 15%(매우 그렇다 5%, 그렇다 10%), 교사들은 32%(매우 그렇다 7%, 그렇다 25%)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1. 교칙 개정 과정의 민주성(학생)〉

◆ 교칙을 만들 때에 학생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38	5%	
그렇다	72	10%	
보통이다	242	33%	
아니다	213	29%	
매우 아니다	169	23%	
No Answer	2	0%	

〈그림4-2. 교칙 개정 과정의 민주성(교사)〉

◆ 교칙을 만들 때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22	7%	
그렇다	75	25%	
보통이다	109	37%	
아니다	77	26%	
매우 아니다	16	5%	
No Answer	0	0%	

- 교칙 개정의 과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방법, 대의원회, 전교생 토론 등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 중 논의한 바가 없다는 비율이 학생 24%, 교사 11%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4-3. 교칙 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학생)〉

◆ 학교에서 교칙을 개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까?(중복 응답 가능)			
전교생이 함께 토론을 거쳐서 결정	215	29%	
학생, 학부모용 설문조사로 의견 수렴	218	30%	
반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논의	232	32%	
논의한 바가 없음	177	24%	
기타 :	39	5%	






〈그림4-4. 교칙 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교사)〉

◆ 학교에서 교칙을 개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까?(중복 응답 가능)			
전교생이 함께 토론을 거쳐서 결정	45	11%	
학부모, 교사 등 설문조사로 의견 수렴	111	27%	
학생 대의원회의에서 논의	129	31%	
교직원 회의에서 논의	70	17%	
논의한 바가 없음	46	11%	
기타	16	4%	


5. 교칙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 교칙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한편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학생들의 37%(비합리적이다 24%, 매우 비합리적이다 13%)가 비합리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교사들은 25%(비합리적이다 20%, 매우 비합리적이다 5%)로 나타났다. 합리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학생들의 17%, 교사들의 29%로 나타났다.

〈그림5-1. 교칙 합리성에 대한 인식(학생)〉

◆ 교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합리적이다	21	3%	
합리적이다	106	14%	
보통이다	327	44%	
비합리적이다	177	24%	
매우 비합리적이다	99	13%	
No Answer	6	1%	

〈그림5-2. 교칙 합리성에 대한 인식(교사)〉

◆ 교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합리적이다	6	2%	
합리적이다	80	27%	
보통이다	139	47%	
비합리적이다	60	20%	
매우 비합리적이다	14	5%	
No Answer		0%	

6.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인식

-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인식에서 학생들은 44%(매우 찬성 21%, 찬성 23%)가 찬성한 반면, 교사들은 34%(매우 찬성 11%, 찬성 23%)가 찬성하였다. 반대하는 의견은 학생들의 23%(매우 반대 10%, 반대 13%)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41%(매우 반대 14%, 반대 27%)로 나타났다. 요컨대 학생들은 10명 중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반면, 교사들은 10명 중 4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는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6-1.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인식(학생)〉

◆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상벌점제 폐지를 하였습니다.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158	21%	
찬성한다	171	23%	
보통이다	239	32%	
반대한다	95	13%	
매우 반대한다	70	10%	
No Answer	3	0%	

〈그림6-2.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인식(교사)〉

◆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상벌점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32	11%	
찬성한다	69	23%	
보통이다	77	26%	
반대한다	79	27%	
매우 반대한다	41	14%	
No Answer	0	0%	

7. 상벌점제를 폐지한 경기도 지역의 인식

- 실제로 상벌점제를 폐지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만 살펴보면 학생들의 경우 42%(매우 찬성 20%, 찬성 22%)가 찬성한 반면, 28%(반대 14%, 매우 반대 14%)가 반대했고, 교사들의 경우 36%(매우찬성 11%, 찬성 25%)가 찬성한 반면, 43%(반대 25%, 매우 반대18%)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림7-1.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인식(경기도지역 학생)〉

◆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상벌점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87	20%	
찬성한다	94	22%	
보통이다	129	30%	
반대한다	58	14%	
매우 반대한다	60	14%	
No Answer	0	0%	

〈그림7-2.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인식(경기도지역 교사)〉

◆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상벌점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15	11%	
찬성한다	36	25%	
보통이다	31	22%	
반대한다	35	25%	
매우 반대한다	25	18%	
No Answer	0	0%	

8.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정에 대한 주관식 응답 사례 분석

- 학생들의 상당수는 외투 규정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정문을 통과할 때 추운 날씨

인데 외투를 벗어야 한다든지, 실내에서는 외투 착용을 금지한다든지, 색깔이 있는 외투를 못 입게 한다든지, 반드시 교복 상의를 입고 외투를 착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불만 요인으로 꼽았다. 교사들도 외투 착용 규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

- 두발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머리 길이에 대한 전통적인 불만도 남아 있는 한편 머리를 반드시 묶어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도 존재하였다. 원래 머리 색깔이 갈색인데 검은 색으로 염색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 화장에 대해서도 최근 썬크림이나 립밤 등의 경우도 약간의 화장 기능이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스마트폰에 대한 규제도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주일 동안 압수를 하거나 한 달 동안 압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 교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결국 학생들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고, 오히려 교칙이 더욱 엄격해지는 경우도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소외의식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 교사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교사 간 불일치 문제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이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자신도 납득하기 어려운 교칙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작 반드시 지켜야 할 교칙과 불합리한 교칙이 혼재되어 있어 교칙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풍조(규정은 그렇지만 실재는 다르다는 인식)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9. 종합적 분석 및 제언

- 전반적으로 용의복장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교칙의 민주성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비율이 높다.
- 교사들은 학생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칙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지니지만 교칙의 불합리성,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지 않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정의 수호자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갈등도 느끼고 있다.

- 불합리한 교칙에 대한 불신은 학교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규칙에도 위해가 된다.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결정된 합리적 규칙은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에 기여한다. 학교 교칙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이 필요하다.
- 타인에 대한 피해를 제외하고 주어지는 규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과반수 동의를 필수로 하는 원칙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록. 설문 양식〉

〈학생 설문 양식〉

안녕하세요? 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 여러분들께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자: 좋은교사운동 김진우(010-7239-1998)

[설문 1] 학교생활에서 선생님과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수업 태도
- ☐ 용의 복장
- ☐ 지각
- ☐ 스마트폰
- ☐ 청소
- ☐ 기타

[설문 2] 학교 용의 복장 규정 중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두발 규정(길이, 염색 등)
- ☐ 의복 규정(교복, 신발, 외투 등)
- ☐ 용모 규정(화장, 귀걸이 등)
- ☐ 없다

[설문 3] 선생님들이 용의 복장을 지도할 때 교칙대로 지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교칙보다 엄격하게 지도하신다
- ☐ 교칙대로 지도하신다
- ☐ 교칙보다 느슨하게 지도하신다
- ☐ 교칙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설문 4] 학교에서 교칙을 개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까?(중복 응답 가능)

- ☐ 전교생이 함께 토론을 거쳐서 결정

- ☐ 학생, 학부모용 설문조사로 의견 수합
- ☐ 반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논의
- ☐ 논의한 바가 없음
- ☐ 기타 :

[설문 5] 교칙을 만들 때에 학생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그렇다
- ☐ 그렇다
- ☐ 보통이다
- ☐ 아니다
- ☐ 매우 아니다

[설문 6] 교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합리적이다
- ☐ 합리적이다
- ☐ 보통이다
- ☐ 비합리적이다
- ☐ 매우 비합리적이다

[설문 7]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상벌점제 폐지를 하였습니다.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찬성한다
- ☐ 찬성한다
- ☐ 보통이다
- ☐ 반대한다
- ☐ 매우 반대한다

[설문 8] 교칙과 관련하여 자신이 가장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설문 9]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소속 학교는?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설문 10] 성별은?

- ☐ 남
- ☐ 여

[설문 11] 지역은?

- ☐ 서울
- ☐ 경기
- ☐ 인천
- ☐ 강원권
- ☐ 충청권
- ☐ 경상권
- ☐ 호남권
- ☐ 제주

〈교사 설문 양식〉

안녕하세요? 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설문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설문 1] 학교생활에서 학생들과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수업 태도
- ☐ 용의 복장
- ☐ 지각
- ☐ 스마트폰
- ☐ 청소

☐ 기타 :

[설문 2] 학교 용의 복장 규정 중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두발 규정(길이, 염색 등)
- ☐ 의복 규정(교복, 신발, 외투 등)
- ☐ 용모 규정(화장, 귀걸이 등)
- ☐ 없다

[설문 3] 동료 교사들이 용의 복장을 지도할 때 교칙대로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교칙보다 엄격하게 지도한다
- ☐ 교칙대로 지도한다
- ☐ 교칙보다 느슨하게 지도한다
- ☐ 교칙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설문 4] 학교에서 교칙을 개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까?(중복 응답 가능)

- ☐ 전교생이 함께 토론을 거쳐서 결정
- ☐ 학부모, 교사 등 설문조사로 의견 수합
- ☐ 학생 대의원회의에서 논의
- ☐ 교직원 회의에서 논의
- ☐ 논의한 바가 없음

☐ 기타

[설문 5] 교칙을 만들 때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그렇다
- ☐ 그렇다
- ☐ 보통이다
- ☐ 아니다
- ☐ 매우 아니다

[설문 6] 교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합리적이다
- ☐ 합리적이다
- ☐ 보통이다
- ☐ 비합리적이다
- ☐ 매우 비합리적이다

[설문 7]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상벌점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찬성한다
- ☐ 찬성한다
- ☐ 보통이다
- ☐ 반대한다
- ☐ 매우 반대한다

[설문 8] 교칙과 관련하여 가장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설문 9] 선생님의 학교는?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설문 10] 지역은?

- ☐ 서울
- ☐ 경기
- ☐ 인천
- ☐ 강원권
- ☐ 충청권
- ☐ 경상권
- ☐ 호남권
- ☐ 제주

[설문 11] 성별은?

- ☐ 남
- ☐ 여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토론1

최항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학교 교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작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이후 학생들의 용의복장이 예전에 비해 자유로워졌기에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번 토론의 기획단계에서 제기되었다’고 송하영 선생님이 발제문 머리에서 밝힌 것처럼, 많은 선생님과 보호자들이 종전의 학교에 비하면 지금의 학생들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그만큼은 학교 내 인권은 진전되었다 여기고 있다.

토론자 역시 예전의 학교 문화에 비하면 지금의 학생들은 틀림없이 많은 부분이 학교생활에서 허용 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가 우리 헌법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 내 아동의 인권(학생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증진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해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생각된다.

즉,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이후 엄격한 통제와 제한 중심의 학교 교칙의 일부를 포기(?)하고 학생의 두발과 용의 복장에 대해 파격적인 자유를 부여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학생인권 보호의 기본적 전제로서 학생을 학교 내 인권의 독립된 주체이자 학교 구성원의 한 축으로서 인정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우리 학교가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론자 역시 학교 교칙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과도하게 통제 중심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학생들의 자발적, 자율적 참여가 중심이 된 개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발제자의 연구 대상인 서울지역의 학교와 달리 경기도의 경우 학교 교칙이 최소한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수차례 학교 교칙의 개정 작업을 시도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두발이나 용의·복장 등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 중 의미 없는 통제적 규정들은 삭제되었거나 그 제한은 최소화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¹³⁾

이에 토론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고 있는 학교 교칙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 보자는 제안과 함께 학교 교칙 중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교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보장을 위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⁴⁾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국민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며, 국가는 이 자유로운 존재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한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많은 법률들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나 통제로부터 국민이 온전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익 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제한으로 인해 그 기본권의 본질적 요소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학교 내 교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 “학교

13)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준비와 함께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교칙 제·개정 정비 사업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우리 정부의 2010년 국가보고서에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로 제시된바 있다.

14)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의해 국가라는 큰 범주에서와 같이 학교라는 범주에서도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칙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학생다운’ 모습을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학생다운’ 모습을 요구하면서 학생을 통제하는 근거 규범이라기보다는, 학생이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진다.(세계인권선언 제29조)”고 할 것이고,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학생은 최소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학교 교칙을 통해 학교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제한적 규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교칙은 어른의 입장에서 ‘학생다운’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규범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로서 온전히 인정받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교육적 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것만 주겠다는 훈육적 학교 교칙에서 학생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참여와 자율 보장의 학교 교칙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2. 학교 교칙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위에서 언급한 학교 교칙에 대한 이해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학교 교칙)에 대해 쟁점별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학교 교칙 제·개정 절차 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전 학교 교칙과 관련된 몇 번의 결정을 통해, 학교 교칙이 온전한 학교규범으로써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대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열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학교 교칙을 개정하고 있기도 하다.

나. 학생생활교육(학생지도)은 교사가 직접해야 한다.

과거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선도부나 명예경찰 제도를 통해 다른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지금도 바른생활부, 예절부, 인성부로 이름만 변경하여 학생들이 학생을 지도하도록 규정한 학교가 있으나 이러한 지도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친구 사이나 선배가 후배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학생부에 고발하는 방식은 생활공동체 내에서 인간 관계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징계 및 지도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학교장으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사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자치부, 학생선도부, 학생예절부, 학생인성부 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학생지도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행사하게 하거나 지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교육 지도는 교사가 직접 진행하고, 학생이 이를 보조하는 행위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실현을 보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학생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면서, 학생의 두발이나 용의 복장은 가급적 최대한 보장하되,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도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두발의 길이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적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무리하면서 토론자도 발제자의 의견과 같이 학교 교칙의 제·개정에는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학생을 지도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자율적 행동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여, 학교 교칙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들은 자기 삶을 경영할 주체자로서 현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 하는 동시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토론2

윤우현 국사봉중학교 교사

평화로운 교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공동체 생활협약 만들기

1. 생활협약을 추진하기까지

국사봉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기피하는 학교였다. 2~3년 전 까지도 학부모가 “우리 딸이 국사봉중학교에 배정되었다니까 엄마를 껴안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학교였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4년 근무하던 시절부터 3년만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전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도 했었다. 주변에 아직도 철거가 진행 중인 이른바 ‘달동네’가 넓게 분포해 있고,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그 곳 학부모들이 교육청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3~4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배정되지 않고 있다.

중식지원 대상자 비율이 30%정도로 국민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가 많은 편이며, 20%정도의 아파트 단지 거주자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부적응 학생이 많은 편이어서 학생 생활교육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국사봉중학교에 대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의 인식은 ‘기피학교’ 그 자체였으며 학생들도 자존감이 낮고,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주변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교라는 명예를 안고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학부모, 교사들은 교장 초빙공모제를 통해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09년에는 친환경 그린스쿨로 지정되어 학교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생태연못 등도 설치하였다. 2010년에는 체육관도 들어서게 되어 시설 면에서는 서울지역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오래된 ‘기피학교’로서의 낙인을 벗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교문화를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때마침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공모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게 ‘혁신학교’를 신청하게 되었다.

2013년 현재 3년차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를 운영한 지 2년 동안 학부모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고,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만족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2010년 17%, 2011년 8%, 2012년 4%, 2013년 3.5%)도 크게 개선되어 마침내 2013년에는 기초학력 미달학교에서 제외되었다. 학교 내에서 담배냄새와 폭력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등 학생생활문화도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과 ‘공동체 생활협약’이었다고 생각된다.

2. 대안교실 운영(부적응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경험과 생활협약

혁신학교를 신청하기 이전까지 국사봉중학교 교사들의 최대 화두는 수많은 부적응 학생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반인반수’처럼 날뛰는 저 아이들과 공감·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08년부터 1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대안교실’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각자가 원하는 “중학시절 해야할 10가지”를 선정하여 함께 프로젝트 활동을 하였고,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사제동행 산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서울주변 산들을 함께 다니며, 문화체험, 다양한 성찰 프로그램, 명상, 야영 등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로 공감, 소통한 만큼 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하자센터, 성미산 학교, 이우학교, 지역 사회단체 등을 탐방하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점차 교장, 교감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며, 국사봉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게 되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부터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도 매일 함께 하면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은 2, 3학년 각각 20여명의 부적응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침, 오후 축구 동아리가 만들어 졌으며, 전문강사가 축구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생활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보다 훨씬 더 밀착되고, 일상적인 공감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활협약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2박3일 여름 캠프(산행 포함), 각종 체험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장,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2010년 여름방학 때부터 대안교실 연구모임의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혁신학교 연구모임을 만들었고, 새롭게 21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교육 철학 세미나, 다른 학교 사례 연구, 주제별 토론회(구체적인 학생 사례 포함) 등을 개최하였다. 당시 새로 부임한 학교장도 학교상황에 공감하고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포함한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를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3. 평화로운 교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공동체 생활협약 만들기

‘공동체 생활협약 만들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교사회의에서 “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존의 생활지도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꾸로 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만들고, 100% 자율로 운영토록 해보자”,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간섭하지 말고, 학생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려 보자”, “학생들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가름날 때, 그 때는 이전의 생활지도 방식으로 돌아가도 늦지 않다”는 원칙만 정한 채,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였다. 교사, 학부모는 학생들이 하는 만큼만 뒤따라하기로 하였다.

‘생활규칙을 스스로 만든다’는 소식에 대다수 학생들이 환호했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계획을 협의한 후, 각 학급별 의견 만들기 3단계(개인의견 붙이기, 모둠별로 요약하기, 학교약속 정하기)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아침시간 30분과 5분씩 수업을 단축하여 마련한 시간, 자치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협약 만들기에 참여하였다. 각 학급에서 만든 약속들이 모아진 이후 이를 바탕으로 대의원회에서 학교약속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학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둠별로 7가지씩 요약하기, 전체에서 7가지 만들기, 쟁점 분류하여 토론하기 등을 거쳐 학교약속(안)이 만들어졌다. 그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넓고 깊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이 병행되었다. 총 25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3개팀으로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교사1인당 평균3~5시간 켜의 교과통합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각각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반대의견이 많은 3가지 영역(두발, 복장, 휴대폰)에 대해서는 쟁점투표를 실시하였다. 이후 적용방안(벌칙 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3단계 토론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자율약속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게 벌칙을 다 없애버렸다. 학생들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소한의 영역(폭력, 흡연, 수업방

해 및 정당한 지도 불응 등 7가지)에 대해서만 강제규정을 두었고, 강제규정은 교사들이 운영토록 하고 벌칙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수많은 장애물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생활협약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8월 31일 협약식 이후 3년 동안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년간의 적용과정을 거쳐 2013년에는 생활협약 내용 전체를 학교생활규정에 포함시켰으며, 3년차인 2014년에는 민주시민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중 프로젝트 활동과 자치활동이 결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생활협약은 ‘자율약속’과 ‘강제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다. 강제조항은 폭력, 절도, 흡연, 수업방해와 교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 부정행위, 무단출결 등 7가지 영역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교사들이 운영토록 하고 있고, 벌칙도 있다. 그러나 두발, 복장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자율약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벌칙도 없다. 학생회와 학급회장단은 격주 1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평가하여 월 1회 학급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캠페인, 편지쓰기 등을 통해 약속이행을 점검해 나가고 있다. 교사들이 개입(성찰 프로그램 운영 등)하거나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강제규칙과 관련된 부분뿐이다. 그럼에도 과거보다 훨씬 더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흡연도 사라졌고, 학생들 간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교사자율약속도 월 1회씩 성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교사회의에서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학부모 자율약속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사봉중학교에서 서울형 혁신학교로서 추구하고자 했던 새로운 학교문화가 빠르게 자리잡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혁신 노력이라든지 교육활동 중심의 업무정상화 추진과 민주적 운영 등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크게 학교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생활협약이었다. 특히 2012년 1학기 내내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 토론 등 집단지성 방식을 통해 3주체가 각각 자율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평화로운 교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공동체 생활협약’ 이후 학교문화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교사들 대다수가 생활협약과 프로젝트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생과의 공감대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2학기 적용과정에서 우려와는 달리 생활협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학생 생활문화가 선순환되기 시작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많은 공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2년차 중간평가 즈음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도 생활협약의 도입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1) 생활협약 프로젝트 수업

학생들이 생활협약 추진 계획서를 만들고, 홍보활동과 토론을 진행하고는 있었지만 학생회 임원들은 “아직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많은 홍보시간과 토론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수업시간을 5분씩, 10분씩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을리 만무했다.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생활협약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끝에 ‘생활협약을 위한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시민교육과정의 하나로 생활민주주의와 생활협약을 주제로 한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공모한 결과 21분의 선생님들이 참여신청을 하였다. 선생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학년별로 팀을 짜서 역할분담을 하고,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각 교과시간에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쓰기, 말하기, 표현하기, 토론하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협약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각의 생활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생활협약을 끝까지 밀고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생활교육을 하는 것이 국사봉중학교 생활교육의 특징이 되었다. 학생들이 ‘생활협약’에 관한 주제탐구수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행복한 학교생활, 평화로운 교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인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탐구주제의 하나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생활협약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지원활동(생활협약 프로젝트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학생자치활동의 주된 내용이 생활협약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에 하던 학생회 활동이 위축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영역과 생활협약 운영이 결합되면서 학생들의 집단지성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생활협약 프로젝트 수업 자체도 학생들의 자치, 자율능력을 향상시키는 민주시민 교육과정으로써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2013년도에도 3, 4월중에 생활협약 프로젝트 수업이 실시되었으며, 2년차인 생활협약과 학생생활문화를 성찰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프로젝트 활동의 주된 내용은 예술적 표현, 생활협약 관련 주제별 글쓰기 수업, 생활교육 관련 주제 토론, 수업동영상, UCC 제작 실습, 외국어로 표현하기, 역할극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관련 사진, 비디오 등을 모아 동영상 제작하기, 주제별 패러디, 홍보물 포스터, 모자이크, 만화 애니메이션, 노가바 만들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급 협약 8가지를 영어, 4자성어로 표현(쓰고 말하기)한다든지, 애니메이션 대본 만들기과 에세이, 시, 체험수기,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생활협약의 의미, 방향 등에 대한 쟁점 토론, 토론 활동지 작성, 인터뷰 보고서, PPT 만들기, 협약보완 설문지 만들기, 퀴즈 만들기 등을 통해 집단지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 결과물을 복도와 교실에 전시하여 모든 학생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생활협약에 대한 적용 과정

1) 학급 자치시간

국사봉중학교에서는 매월 1회씩 학급 자치활동이 열린다. 2시간 연속으로 진행되는데 1시간은 그동안의 생활협약 운영에 대해 성찰하고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진다. 나머지 1시간은 그 결과를 학생 대의원회의에서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그 시간에 각 학급에서는 TV화면을 통해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생활협약을 시작한 이후로는 학생자치활동의 대부분이 생활협약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0월 4일, 금요일 5, 6교시, 모든 교실에서 학급자치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학급회장이 지난달에 작성한 자기성찰 체크리스트 통계 결과를 보고한다. 갑자기 교실 내에 웃음꽃이 핀다. 체크리스트 결과가 너무 ‘잘하고 있다’로 나왔기 때문이다. 서로 “너~, 지난주에 욱 많이 했잖아?”, “000은 몰래 휴대폰 했는데?”, “교실이 너무 지저분했어.”, “싸울 때 가만히 보고 있었잖아?” 각종 지적질로 교실 안이 왁자지껄해진다. 대책으로 “캠페인 시키자”, “사과 편지 쓰게 하자” 등의 제안이 나왔다.

그 다음 순서로 지난번 학급회의에서 제안했던 “소수의견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염색을 자제하기로 했는데, 개성표현을 위해 노랑머리도 할 수 있게 하자”, “교복을 단정히 입기로 했는데, 사복도 입을 수 있게 하자”, “수업시간에 졸리면 잠잘 수 있도록 하자” 등등. 지난번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에서 나온 소수의견들을 소개하고, 그 의견들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약속을 정했으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내년에 자율약속을 개정하기 위해 친구들을 설득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6교시, 각 학급 대의원들이 모여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지에 학급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예쁜 그림들과 낙서까지 그대로 보여준다. 교실에서는 각 학급 발표내용을 보면서 낄낄거리기도 하고, 우리학급 내용과 비교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메모를 보내기도 한다.

2) 학생회 활동

국사봉중학교 학생회활동은 다른 학교 학생자치활동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학생자치활동의 대부분이 생활협약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누가 그런 방향을 잡아주지 않았지만, 생활협약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침독서시간 운영, 반별 체육대회, 마을기자단 활동, 모의법정, 축제, 뮤지컬 발표회, 학생복지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치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학생대의원회에서는 “소수의견,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 학급 의견을 발표하고, 전체 토론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수의 의견,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 (학생대의원회 토론 결과)

-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편견 없이 귀를 열고 듣자!!
 - 소수의 의견을 방송을 통해 공유
 -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되 소수의 의견을 첨부
 - 일정기간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해보고 채택
- 자주 토론하자
 - 소수 의견에 대해 다수 의견과 비교하면서 토론 시간 가지기
 - 의견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을 따로 토론하게 하기
 - 소수의 의견들만 모아서 한번쯤은 학급에서 회의
 - 학생회(다수 의견인 대표 몇 명 모아서)가 소수 의견인을 대상으로 설득
 - 소수의 의견인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도록 한다.
- 보완점을 찾아 보자!!
 - 소수의 의견 중 장점(좋은 의견)만 모아서 자율약속에 반영하자.
 - 소수의 의견에서 단점을 보완해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 보자.

학생 자치활동은 월 1회 학급자치 1시간, 대의원회 1시간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시간 활동이 이루어진다. 격주 1회(목요일)에는 아침시간에 생활협약 체크리스트를 작성(자기성찰)하고, 다음 격주 1회(금요일)에는 학년별 학생대표회의를 통해 체크리스트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토론을 하고 있다. 게다가 학기별 1회씩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1년에 두 번하는 임원수련회도 핵심주제가 생활협약 운영에 관한 연수 및 토론이다.

이러한 학생생활협약과 자치활동은 차츰 학생문화로써 뿌리내려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향후 1~2년 정도만 더 쌓이면 지속가능한 새로운 학생문화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다. 처음엔 누구도 학생들이 생활협약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예상을 비웃듯 학생들은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

5.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생활협약에 대한 평가

생활협약은 학교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할 때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생활공동체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교사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교사회의와 학부모 총회를 거쳐 교사들이 지켜야할 약속과 학부모들이 지켜야할 약속을 각각 만들기로 했다. 진행방식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며, 학생들이 하는 만큼 따라하기로 했다.

사실 생활협약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교사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지만,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때 다시 옛날 생활지도 방식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과 ‘학생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자’는 아주 간단한 원칙만 공유한 채, ‘생활협약T/F’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무슨 내용이든 학생들이 만든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몇 번씩 획득받은 후, 학생회를 중심으로 용감하게(?) 생활협약 만들기에 도전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학부모총회에서 ‘공동체 생활협약’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학부모 생활협약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주체가 각각 자율약속을 만들어서 함께 지켜나가기로 한 것이다. 국사봉중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각각의 생활협약을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줄기차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집단지성을 활성화해 왔다. 학생들이 스티커 붙이기, 활동지 작성을 하면 교사, 학부모도 따라하고, 학생들이 토론회를 하면, 그 후에 교사, 학부모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교사, 학부모도 각각 자율약속을 정하였다.

아이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기로 했지만 교사, 학부모의 경우, 생활협약이 형식화되지 않을까 걱정도 없지 않았다. 월 1회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자기성찰을 해 나가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 잘 지키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성찰하면서 잘 지키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글로 써서 보내주었다. “정말로 학교가 변하는 것 같다.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생활협약은 정말 잘하는 일 같다.” 등등.

1) 공동체 생활협약에 대한 학부모 의견

- 학부모 생활협약을 통해 아이와 나 사이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자녀와 함께 체험 활동하는 것에 소홀했다. 같이 산책이라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잘해보도록 노력해야겠다.
- 좀 더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어야겠다.
- 자녀와 공감, 소통하기가 생각은 늘 갖고 있으나 실천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 눈높이에 맞추어 자주 대화의 시간을 나누고 아들의 의견도 존중하겠다.
- 생활협약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이에 눈높이에 서게 되었고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 자녀와 공감, 소통하기를 잘 하지 못해서 반성하게 되네요.
-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자녀와 공감, 소통하기를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부성과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많이 신경쓰고 싶습니다.
- 사춘기인 아이들과 소통함에 있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말을 끝까지 안들으려고 하다보니 서로 마찰이 생깁니다. 버럭 화를 내고 상처되는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서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더 많은 관심 사랑으로 바른 생활 예의바른 **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는 일이 바쁘고 여유가 없어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노력할 것입니다.
- 한 번의 간단한 규칙이 처음엔 의식적으로라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5월이 되니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다시 각오를 다져야 할 듯..
- 매일 학습시간 채우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또다시 일방적인 훈계를 하게 되었다.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기를 먼저 해야하는데 역시 잘 안 된다. 버럭하지 않기가 힘들.
- 자녀와 소통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는 순간적으로 버럭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학원만이 아닌 집에 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아이와 함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청소년기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군요. 인식하고 부모인 제가 먼저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핸드폰 사용 조절이 잘 안되어 다투게 되었는데 의견 조율이 힘들고 일방적인 훈계로 끝났다.
- 아이의 의견을 끌어내지 못하고 먼저 버럭 하여 대화를 끊게 되었다.
- 아이의 눈높이서 배려하며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뜻은 있으나 실천이 어렵군요. 시간적, 현실적인 부분과 사춘기 자녀와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고 때론 다투게도 됩니다.
- 자녀와 대화시에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와선 아이들이 반항이나 생각이 확고해서 차분하게 설득하려고 노력중입니다.
- 그리고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는 호의적 행동을 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과민하고 예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득하기보다는 잔소리로 받아드릴 때가 많아 순조로운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녀와 공감, 소통하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로서 더욱 노력해야겠다.
-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보지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생활협약을 보면서 다 잘했던 일들인데~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다. 우리 **이가 행복하도록 노력하리라..
- 학생들이 정한 협약을 지키려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게되고요. 뒤에서 잘 따라가는 엄마 되겠습니다.
- 잘한 것 보다는 더 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아이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밀어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5월달 바쁜 일정으로 인해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 같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좀 더 배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해야겠다.
- 항목별로 가슴에 새기고 생활화되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임에 학부모 스스로 더 반성해야겠습니다.
- 행동으로 옮기기는 다소 어려움이 많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화할 때 끝까지 말을 듣지않고 중간에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기분을 존중하며 끝까지 말을 들어주고 화를 내지않고 차분하게 끝까지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매일 머리에 인지하고 위 내용을 실천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 저희 집은 대체로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며 의사를 존중하는 편이지만 사춘기를 접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 많은 부분에서 생각만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좀 더 아이에 입장과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겠다.
- 아이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도록 노력하고, 고민이 무엇인지 더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교사들의 평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3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이 커졌다.”

“우리가 만든 생활협약, 우리가 지킨다는 공동체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생활협약(생활민주주의)을 주제로 한 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에 공감대가 확장되었고, 학생들이 생활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주체로써 매사에 자치, 자율, 협약할 수 있는 집단지성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협약 체크리스트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스스로 상호관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학부모들이 생활교육에 함께 참여-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문화의 변화를 자각하고 함께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학생들의 생활문화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3) 학생들의 평가

“우리 스스로 학교규칙을 만들어서 좋았다.”

“학교가 많이 바뀐 것 같고 책임감이 생겨서 좋았다.”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덕분에 학교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선생님, 부모님도 약속을 정하고 함께해서 좋았다.”

“우리가 만들어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정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없어져서 좋았다.”

“애들이랑 모둠을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서로 가르쳐주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게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는다.”

“생활협약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무슨 행동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고, 뭔가 기분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

“별점제도가 사라져 좋았고, 스스로 나쁜 점을 고쳐나갈 수 있었다. 애들도 잘 지키는 게 보기 좋았다.”

“자기조절능력이 생겼고, 욕도 적게 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 거 같아 뿌듯했고,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다.”

6. 공동체 생활협약에 대한 성찰과 과제

“지금 국사봉중학교에서 하는 생활협약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핀란드의 교육개혁도 학생들의 자율, 자치, 협약 문화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학급에서 한 학교로, 한 학교에서 10학교로, 100학교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핀란드 교육개혁의 토대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서 ‘핀란드 교육혁신’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20여 년 간 핀란드 교육혁신을 이끌었던 에르끼 아호가 국사봉중학교를 방문하여 생활협약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했던 말이다.

실제로 생활협약을 하면서 학교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스스로를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로 불신하고 피해의식을 갖던 악순환에서 벗어나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생활협약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졌고, 자율과 책임을 체득하면서 학교생활이 뿌듯하고 즐겁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내용도 행사운영이나 회의 등에 머물렀던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확대되었다. 일상적으로 생활협약을 운영해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자치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생활협약을 통해 학생들도 집단지성의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시,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협력의 동반자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흡연이 사라지고 별칙이 없는데도 오히려 약속을 더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학교생활규칙의 대부분을 학생들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도 생겼다. 그동안 혁신학교에 대해 시큰둥하던 학부모들은 “이제 학교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다.”며 생활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생활협약이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학교폭력이나 교실붕괴와 같은 황폐화된 학교문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좀 더 섬세하게 점검하여 보완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교육과정 내에서 주제 탐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고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뒷받침 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생활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이 꾸준히 축적되어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학생 생활협약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온전히 필요하다고 하듯이 생활공동체를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생활협약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생활협약에 반발하는 부적응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공감소통의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사봉중학교에서는 돌봄 캠프(대안교실)을 통해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2013, 2014년에 각각 2년차, 3년차 생활협약을 시작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 생활협약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교사, 1,2,3학년 학생, 학부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다. 복장문제와 관련된 개정요구가 25% 정도 나왔지만 현행 자율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만으로는 생활

협약에 필요한 충분한 공감대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학부모도, 교사들도 바뀌기 때문이다.

국사봉중학교에서는 그 대안으로 토론연극을 실시한다든지,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학급 자치활동 등을 통해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다. 교사, 학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도 필요하며, 특히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생활협약 주제탐구 프로젝트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학생의 2/3 이상이 생활협약을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약하면 생활협약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학생생활지도’를 ‘민주시민교육=생활공동체 교육’으로 혁신하자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위주, 처벌위주의 학생 생활규칙을 학생들이 만든 자율적인 생활협약으로 대체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자치와 학급자치를 중심으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일상적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문화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아래로부터 만들어 나갈 때 그 의미가 살아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새로운 학교문화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등교육의 본령은 ‘민주시민교육’이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에 걸맞는 정상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민주시민교육과정이 가장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사봉중학교는 생활협약을 선택했다. 중학교 학생들이 자율, 자치, 협약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까? 생활협약을 이해하고 그 의미에 걸맞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많은 교사들이 ‘수준이 안된다’며 반대했지만 우리는 2년여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자율, 자치, 협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스로 집단지성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몇단계 높은 수준의 생활공동체문화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사봉중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1 학생 자율 약속

학생들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자율약속	
1. 수업 매너	- 수업시간에 줄거나 잠가지 않겠다(줄리면 선생님의 허락을 얻은 후 잠깐 쉰다) - 수업시간에 군것질을 하거나 잡담을 하지 않고, 서로 참여-협력하며 경청하겠다. - 자리를 바꾸거나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 종치면 곧 바로 자리에 앉아 수업준비를 하겠다.
2. 두발	- 두발은 자율화하되, 염색은 자제(튀지 않는 색깔)하도록 하고, 퍼머(웨이브)는 금지한다.
3. 언어예절	- 학우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며, 고운 말(다가가는 대화)을 사용한다. - 선생님들께 예의바른 용어를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말대꾸하지 않는다.
4. 복장 등	- 지정된 교복, 또는 생활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등교 이후 추울 때는 상의위에 패딩, 점퍼 등을 걸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생활복, 간편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나친 화장, 악세사리는 자제하도록 한다.
5.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 휴대폰은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단 휴대폰으로 인한 수업 방해가 학급별로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1개월간 학급별로 모아서 보관하고 종례 후에 돌려받도록 한다.)
6. 청결, 실내화	- 교실, 복도 등에 쓰레기, 침, 땀 등을 버리지 않고, 항상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한다. - 건강과 안전, 청결한 교실환경을 위해 실내화를 신도록 한다. (삼선슬리퍼 금지)
7. 안전한 학교생활	- 복도나 계단에서 뛰지 않으며, 학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책상, 의자를 포함한 학교 물품을 함부로 다루거나 파손하지 않는다.
8. 평화로운 학교생활	-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협박 등 모든 폭력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 ("폭력 stop !" 운동을 전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토론했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따뜻하고 우정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

2 국사봉중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강제규정)

공동체규칙	징계 수준 (세부방안은 의견수렴 내용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 성폭력 ■ 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름 - 삼자협약 : 학부모-학생-교사 협약체결(서약서, 동반 상담, 성찰계획 제출) - 집단상담, - 학급자치 토론회 개최, - 대안교육 프로그램 이수 ▶ 등교 정지 ~ 강제전학 ▶ 절도의 경우 피해학생에게 해당 물품 변상 포함
■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 이상 흡연 시 등교정지 ~ 강제전학(1년간 누적) - 1회 : 삼자협약 - 2회 : 성찰 프로그램, 대안교육 이수 3회 : 등교정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수업방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삼자협약 (- 단, 해당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중재, 조정, 화해 노력을 우선함.) ▶ 2회 : 성찰 프로그램 이수 ▶ 3회 : 등교정지~
■ 부정행위	▶ 해당고사는 0점 처리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내봉사 ~ 등교정지, 전학
■ 무단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 무단지각, 결과, 조퇴는 무단결석 1회로 처리함 ▶ 1,2,3차 경고 : 무단결석 7회마다 경고 통지서 발송 - 무단출결에 대한 삼자협약, 대안교육 이수 ▶ 3차 경고 이후 : 등교정지 ~

3

교사 자율 약속

교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자율약속	
1. 학생들과 공감 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말을 믿고 존중하며 눈높이를 맞추어 끝까지 경청하기 - 학생들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한 후, 차분하게 설득하기 - 아이들의 기질이 다양하고 생각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역지사지 하기 -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버럭하지 않기, 욕설이나 상처가 되는 말 하지 않기, 차별하거나 비교하지 않기’ -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학생들을 맞이하기
2.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협력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행복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쉽고 재미있게 가르친다. - 교사들도 서로 참여-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수업 연구를 통해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촉발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3. 함께 참여-협력하는 생활교육 (교사, 학생,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 칭찬을 많이 하고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으로 이해해 준다. - 학생 생활교육은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 약속이행을 점검한다. -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 자율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 우선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하고, 이후 상담 및 학년별 성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간다.

4

학부모 자율 약속

학부모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자율약속	
1. 자녀와 공감, 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5분씩 손잡고 대화하기, 등하교시 안아주기, 하루 세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기 - 아이들이 말할 때, 눈높이를 맞추어 끝까지 경청하기 - 아이들과 대화할 때, 부모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버럭하지 않기, 욕설이나 상처가 되는 말 하지 않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기, 잔소리 줄이기 - 먼저 아이들의 감정과 기분을 존중하고, 공감 표현하기,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득하기 - 꽃으로도 때리지 않기
2. 올바른 생활 습관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생활습관(인사예절, 건강, 독서, 게임, 휴대폰 등)을 갖도록 함께 실천하겠다. - 아침밥을 꼭 먹이겠다. - 잠을 충분히 자도록 배려하겠다. - 학교생활과 친구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주 대화하겠다. - 자녀들이 외출할 때는 어른들의 허락을 받도록 하겠다.
3. 함께 참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취미생활을 갖도록 함께 참여하겠다. - 한달에 한번 이상은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거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 자녀들의 꿈, 진학, 장래희망 등에 대해 자녀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존중하고 배려하겠다. - 자녀의 생활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약속을 하고 꼭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토론3

정동혁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교칙의 합리성과 교육적 의미를 묻는다”에 대한 토론

1. 초중등교육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

두발 및 용의복장 등의 학교규칙의 혼란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초중등교육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와 같다. 교사지도 불응, 학내질서 교란, 교육활동 지장 초래 등이 별점 항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두발 및 용의복장 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는 교육의 본질과 비본질이 전도된 것으로써 이번 논의가 시의적절함을 시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2.4.20.)

7의 개정: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개정전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의 개정: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2.4.20.)

● 학생인권조례(2012.01.26.)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과 분쟁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2. 노랑머리, 빨강머리를 허하라

인권조례를 반영하여 두발 및 용의복장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논리가 아닌 정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규칙에서 두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많은 교사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그러면 노랑머리, 빨강머리도 허락한다는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정서적인 거부감이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을 가지고 변화하는 학생들을 그 규칙에 맞게 지도할 수 없어 지도하기를 포기하는데 까지 이르렀지만 그 규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합의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포기한 것과 같다. 반면에 인권조례대로 학교규칙을 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직 정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사들에게는 폭력적인 조치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어떻게 지켜내는가 하는 것이다.

3. ‘대화를 허하라’ 그리고 ‘대화하라’

“대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위해 강화해야 할 다른 분야의 규정들에 대해서도 공론화하고 합의해야 한다”라는 발제자의 결론 부분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용의복장과 두발로 인해 학교현장이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 분쟁을 겪지 않도록 교육의 본질에 대한 합의와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인권친화적인 교육,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구축하는 일에 교육구성원의 에너지가 모아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학생에게서 자발적 책임과 상호존중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규칙을 제, 개정하는 문제는 학생생활지도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이는 훈계 위주의 생활지도에서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발제자가 제시한 삼각산고의 용의복장규정도 학교구성원,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오히려 더 억압적인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4. 발제문에 대한 제언

데이터와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학교규칙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잘 조명한 글로 환경운동에 빗대어 말하면, 환경오염의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기본 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제기한 논거와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제언으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1. 미셸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이론적 근거로 든 점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다. “근대 공교육 제도가 생겨나던 시기의 규칙 중에 아직도 학교에 남아서 교육 주체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한 발제자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2. 용의복장이 지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현장교사 아니면 가지기 어려운 아주 실제적이고 세밀한 사례를 제시한 부분은 실사적인 그림을 보는 듯하다. 용의복장 규정을 둘러싼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생생하게 포착해서 그 문제점을 아주 잘 알게 해주는 다큐사진과 같다.
3. 전체적인 논의를 교육성과 합리성, 그리고 민주성을 키워드로 삼아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가고 있다.
4. 학생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가지는 한계와 교사마다 규칙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함 뿐만 아니라 규칙준수를 요구하는 교사의 어정쩡함 등 용의복장 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학교의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말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규칙에 대한 무관심이 단순히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무질서와 자유분방함, 자신의 입맛에만 맞게 살아가려는 이기적인 마음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토론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5. 1학기 ‘학교, 꿈이 있는 상상’이라는 활동을 통해 나타난 학교규칙 제·개정 문제를 2학기 창체시간과 도덕 수행평가로 이어간 수업수례는 정말 본받을 만한 일.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교육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도 부족할 듯하다.
6. 교칙분석에 있어서 별표는 바람직한 규정제시 방법이라고 했는데 두발관련 규정의 “단정, 학생다운 머리”라는 기준에 대해 별표를 준 것과 관련하여 대안에서 제시한

‘학생다움’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토의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앞서 푸코의 이론적 근거에 배치되는 부분은 아닌지. 선크림, BB크림의 기능에 색조 기능이 첨가돼 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은 합의된 규정이라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해 준다.

5. 결론 ... 어둠과 싸우는 대신 빛을 가져오기

학교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식, 문화에 대한 성찰이 먼저이다. 학교규칙개정이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생들을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규칙과 학교문화가 함께 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녹취록

사회 : 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자 : 송하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토론자 : 최항규(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윤우현(국사봉중학교 교사),
정동혁(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1.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

2. 송하영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발제

3. 최항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토론

4. 윤우현 국사봉중학교 교사 토론

5. 정동혁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토론

6. 질의응답

임종화: 질의응답과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의 입장에서 몇 년 전 학생 인권조례를 할 것인가와는 다르게 실제 인권조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하지 않고 있는가가 발제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되고 있는 경우와 그에 반해 마주하고 있는 정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핵심을 잡고 가야 토론회의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지: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를 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국사봉중학교 사례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철학과 일치하는 사례를 발표해 주셨거든요.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도 아이들과 우리들의 약속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필요한 약속을 만들고 공동체원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최소한의 규칙을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 실천하고, 그 규칙이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토론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떡하지?’ 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해봤더니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하면 삭제하고, 다시 제안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있는 규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규칙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접근을 해요. 그러한 접근을 하신 것에 대해 놀라고, 회복적 생활교육이 현장에서 증명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칙의 목적이 처벌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긍정에서 출발합니다.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만들어야해’가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행복하려면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채우려면 이런 약속이 되어야 할 것 같아’ 하면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사봉 사례가 공감이 되었고,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도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화: 국사봉 학생들이 ‘우리가 정하면 무조건 따를 것을 선생님들이 맹세할 수 있냐고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요구를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사들이 회의해서 결정하면 교육청에서 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허용해주고 교사 사이에서의 민주적, 합리적 결정 능력은 부인하는가 하는 정서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미향: 저는 서미향 장학사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6, 7년부터 학교규칙에서 비민주적인 용어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교육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승인, 인가권이 있던 시절부터 시행했는데 아직도 학교 안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놀랍고, 교육청과 학교가 백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담당하는 장학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위원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시도한 조례 무력화라는 것은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칙을 제정하라고 할 때 조례는 법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쳤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이라기보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된 것이라 법령의 범위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4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인권부장을 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을 오래 담당하다 보니 흐름과 역사적 절차를 알기에 이정도까지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권부장들이 해마다 바뀌고 정책 담

당자들도 생활지도는 안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생활지도 장학사의 생명도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정책의 흐름이 맥이 끊기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생활교육 관련해서 매뉴얼에 나와서 전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윤우현 선생님께 궁금한 것은 생활협약 관련해서 거의 일반화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생활규칙 연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규칙은 학교에서의 제재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부분은 약속의 부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학급의 규칙이나 학교의 약속처럼 가야하는데 토론 내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징계부분이 협약부분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협약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타난 협약처럼 징계부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또다른 옥죄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중학생들은 전학조치도 없고, 전학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자율적 선택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교정지는 중학생들에게 센 벌입니다. 이런 부분이 협약의 징계부분에서 선도위원회 등을 한, 두차례 했다고 해서 등교정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권을 부여 해주어야 하는 논의 부분이 협약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3번을 하면 이 학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대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또다른 제약, 폭력일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 있어서도 법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약간씩 걸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항규: 경기도교육청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테마로 생활 지도가 아닌 생활 교육으로, 학생을 하나의 인격 주체로 대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벌점제 폐지의 근본 취지가 학생중심, 현장중심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생활교육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둔 것이 학교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교실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꼭 지켜야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선도규정, 규칙으로 가고 상벌점제와 같은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행동수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경미한 행동수정과 관련된 것은 생활 협약중심으로 가서 관계회복중심으로, 회복적생활교육 쪽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이렇게 가고 중대한 사항은 비행은 선도위, 학교폭력은 학폭자치위원회가 가지고 가는 취지가 상벌점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사봉중학교는 경미한 행동수정의 경우 협약만 있는 것인지, 학교규칙도 따로 있는 것인지 실제적 운영이 궁금합니다.

김수길: 학교에서 학생자치 지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규칙을 재개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인데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가운 것은 교육청에서 공동체 회복이나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계단을 한걸음 한걸음 놓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학교 현장에 도달했을 때 가치로써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해내야 될 임무, 업무로 주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부에 이 업무가 넘어오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새로 설치가 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학생부에서 떠안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이름은 학생생활인권부라고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가장 지시와 통제에 능숙한 선생님들이 학생부장을 맡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예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좋은 가치를 학교에서 실현하게 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 학생부장 선생님인데 그 가치를 이해조차 못하고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제가 체육과 선생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과 중심으로 학생부 선생님들이 모여서 상명하복의 질서가 편만해 있다 보니 그 상황에서 회복의 가치가 이야기되어도 시쳇말로 그것은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치부해버리니 이런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통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학생부장을 선발할 때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이러한 가치에 대한 동의가 있는 분으로 모시는 것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가치가 기능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대안은 저희 학교는 학생회에 힘을 많이 실어주려고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학생회장 발언권도 많이 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방향은 이런 것이다, 학생회가 하는 단위사업을 잘 하는 것보다 학생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식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회 아이들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매몰되냐면, 1년 짜리 학생회이다보니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사업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학생회장들을 모아서 리더십교육이 아닌, 가치가 전달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주시면 아이들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임종화: 저의 궁금증은 국사봉중학교 사례를 들으면서 아이들도 기다리면서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고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이 교사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국사봉의 핵심은 학교에서 힘들었지만 자발적으로 시작하신 것인데, 이렇게 성공한 것을 교육청이 학교에 내려주었을 때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이니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안거친다면 충분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왔다갔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주체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호권: 2주 전에 주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민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라는 단어가 색깔화가 되어서 논쟁점이 되다보니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라는 단어를 내리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시민교육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점이 대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더 이상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고 문제해결능력에만 집중해있다는 것이, 일류대라는 곳의 학생부터 모든 학생의 문제점입니다. 학생들한테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지?’라는 질문을 하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니?’ 라는 질문에는 일류대학 학생이라도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민주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지? 집에 돈이 없으니 저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 정도 성적이었으니까 저런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고착되어서 학생들이 더 이상 문제라고 보이는 것들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육이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하는지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교칙이 교육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단체의 바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교칙에 대해 바라보는 문제들이 모두 결과중심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에서 이것이 교육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어떻게 과정이 살아나는지를 국사봉중학교 사례로 발표된 것 같은데 오늘 발제를 하거나 문제를 토론하거나 하는 우리조차도 교칙이 제정되는 과정만을 민주성이 구현될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해지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처벌이나 포상으로 학생 본인들에게 피드백되는 결과적인 것까지도 민주성이 담겨야 교육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은, 과정 중에 교직원, 학부모, 학교 세 주체가 같이 의논할 수는 없을까, 이런 방법으로 가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주체가 함께 바라보고 가는 방법을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혁: 국사봉중학교 같은 경우 한 교사의 리더십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데 몇 명의 교사들이 여기에 합의해서 끌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소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 핵심적인 질문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진우: 박호권 간사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약간 되지 않았던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이라는 맹세를 요구했고 교사들이 맹세를 해서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진담인지 아니면 하나의 전략적인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원한다 해도 교사, 학부모가 있고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인데 이후의 협상과정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원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도 참여를 안하니까 복돋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 받아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한 것인지요?

임종화: 이제 토론자와 발제자가 들은 내용에 대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우현: 요즘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연수에 사례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후에 이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학교 상황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체감하는 것은 경기도가 이것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은 체감을 하지만, 인권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질문 속에 통제 중심의 사고가 묻어나고 말씀하시는 방안들이 현재는 통하지 않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례가 사실 긴 사례입니다. 아이들이 준비해서 꼬박 6개월 동안 논의, 토론하고 적용과정 3년 거치면서 매년 문제가 생겼을 때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숨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맥락을 가지고 꼭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활협약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런 멋진 결론을 냈다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거친 과정만큼 아이들이 변화, 성장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과정, 벌칙을 없애가는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토론을 통해 선생님들에게 넘겨준 것이 있습니다. 3분의 2정도 되는 것은 자신들이 약속을 하겠다고 가지고 갔고, 폭력, 흡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 넘겨야겠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벌칙부분까지 선생님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박탈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논의하면서 강제규정은 엄하게 해야 한다고 하며 강제규정을 세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첫단계는 삼자협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적용할만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삼자협약을 기본적으로 하여 자기 스스로 충분히 고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율약속은 교사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자치시간에 토론, 캠페인, 편지쓰기, 뉴스를 통해서 고발하는 정도가 다입니다. 저희들이 지켜본 바로는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지킵니다. 강제규정에 있어서는 삼자협약을 하고 성찰프로그램과 대안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스스로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선도위원회가 있고, 폭자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를 겪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등교정지, 강제전학 부분도 저희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삼자협약과 성찰프로그램이 충분히 이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규칙이 따로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따로 없습니다. 생활협약이 규칙입니다. 예전에 있던 규정과 규칙을 다 드러내고 이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6개월 동안 똑같이 이것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가 똑같이 스티커 붙이기를 하면서 토론을 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좁혀지지 않은 쟁점들은 총투표까지 갔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정한 내용이라 충분히 지켜가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이 무너져있고, 날뛰는 애들이 많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힘들다 하여 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대안교육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례를 찾고, 전국의 대안학교도

돌아보고, 토론토도 꾸준히 3년 정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끼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처음에는 7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차를 대절해서 갈 정도로 많이 함께 따라다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누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촉매제가 되었던 것은 혁신학교를 하면서 새롭게 그동안 해왔던 것을 뒤집어서 해보자는 논의를 시작했을 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제기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제기했냐면 항상 말썽을 부리는 개구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 정말 다각도로 학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토론과정을 거치고, 수업 속에서도 교사들이 제시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토론문 쓰기 등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의 주장이 다 소수의견이 된 것이죠. 첫째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조금씩 지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아이들을 총동원해서 소수의견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제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소수의견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하는 부분으로 실었는데 대의원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중에 ‘일정기간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해보고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만든 생활협약 부분을 보시면 ‘~~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을 자제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토론 중에 바꾼 것입니다. 왜 바꾸었냐면 약속인데 ‘~~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을 자제한다.’는 표현 자체도 소수의 아이들은 의견이 반영이 안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이 파마도 하고 싶고, 더 튀고 싶다고 도발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 일주일동안 하게 해보고 스티커 붙이기를 다시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순간,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제안한 것을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수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한 내용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먹으로나, 발언권으로나, 눈빛으로나 모든 아이들을 제압했던 아이들이 제안했던 것이 소수의견 반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맹세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팩트의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불신이 쌓여있어서 어디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충분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나온 의견이라면 뭐든지 수용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애들이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지 말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잘라내지 말고 무엇을 채울 수 있을지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나서 정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결론 삼아서 문제제기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도 싸인하셨어요. 이 과정 중에 계속 커트를 하셨던 분이 교장,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커다란 홍보물을 20장 정도 만들었는데 ‘창살 없는 감옥, 우리는 옥죄는 학칙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려 부수자, 갈아엎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극적인 홍보물을 교장실 앞에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왜 여기다 붙이나, 다른데 붙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존중하기로 했으니 그냥 일단 두고 보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고비가 6개월 동안 9번 정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조차도 벌칙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공황이 왔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말이죠. 아직 벌칙을 없애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결론은 선생님들끼리 자조적으로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혁: 오늘 제가 이야기 하고자 했던 것이 이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증명이 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라는 확신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은 개인적인 기쁨입니다. 학생에게서 자발적 책임과 상호존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학교교칙제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의 작동방식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찰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향규: 김수길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학생부장에 대한 자격조건 부분은 학교의 부장임명권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로써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학생 회장단 연수같은 경우 지금도 경기도 학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가치전달 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학생교육원은 학생인권지원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학생회 중심, 학생자치중심의 프로그램, 가치공유 쪽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자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

으면 자주 참석을 해서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규칙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마무리

임종화: 발제자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김진우: 기다려보자라는 말이 인상깊게 남아있고,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공간만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들을 너무 봉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하영: 토론회 때마다 참 많이 배우고, 제가 이 주제를 던졌다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대안에 쓴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좋았습니다. 제가 여력이 안된다 싶어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았던 점은 교육청 관계자 분이 오셔서 뒷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본 지점 자체가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교육청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적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 발행인 : 김진우, 임종화
- 편집인 : 김민정
- 발행일 : 2015.03.06
- 발행처 : 좋은교사운동 문서출판부